

< 동정자료 >

## 노형욱 장관, 택배현장 찾아 “사회적 합의” 충실 이행 당부 - 2일 물류터미널 점검하며, 종사자 처우개선·방역·안전 당부 -

-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 2일 서울역에 위치한 CJ 대한통운 용산 서브터미널을 찾아 택배 상·하차 및 분류작업 현장을 점검하고, 종사자를 포용하는 지속가능한 생활물류산업을 육성·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한편, 코로나-19 방역과 화재안전을 당부하였다.
- 노 장관은 자동 분류기와 분류인력이 투입된 택배 상·하차 작업 현장을 살펴본 뒤, “빠르게 성장하는 택배 산업에서 장시간 작업에 노출된 택배기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법적,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  - 지난 6.22일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해 마련된 사회적 합의 사항을 택배업계가 성실히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, 정부도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, 관리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.
- 또한, “택배산업은 코로나 19 이후, 보편화된 비대면 사회에서 국민 모두에게 필수 불가결한 서비스가 되었다”고 강조하며,
  - “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국민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혁신 물류 신기술 개발, 도심 내 물류인프라 확충 등 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”이라고 밝혔다.
- 아울러, 택배터미널 내 코로나19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,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노력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.
- 한편, 노 장관은 취임 초 주택, 건설, 교통 등 민생의 삶과 밀접한 정책 현장을 매주 방문하여 당면 현안과제를 살펴보고 관계자를 격려해 오고 있다.

2021. 7. 2.

국토교통부 대변인